

## #. 조폭 행동대장

룸싸롱에서 주인공들은 수면제를 넣은 술을 마시고 일어나니 테이블위에 고급 양주병이 가득하고 1200만원이라는 바가지 요금의 계산서가 놓여져 있다. 먹지도 않은 술의 술값을 낼 순 없다며 실갱이를 하던 상황에 험담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덩치 큰 행동대장이 툇마니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행동대장: 아이고~형님들...기분 좋게 술먹고 이게 무슨 개진상들이야. 매너 좋게 생겨가지고 말이야. (큰 소리로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매섭게 옥박지른다) 어!

(조용히 술컵을 들어 바라보며 대사를 이어간다) 내가 세월의 모진 풍파 몸으로 몸소 맞으며 (자신의 신체부위를 가르키며) 배때기에 칼이 들어 왔을 때, 17대1로 린치(다구리)를 당할 때, 내장이 흘러 구급차에 실려 하나님 신방가기 직전일 때도! 한가지 확실히 느끼고 살아온 건...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야. (옥박지르며) 그런데 내가 형님이라고 부른 점잖게 생긴 개진상들이 신성한 내 영업장에 들어와 공짜로 노래부르고, 공짜로 술 쳐먹고, 공짜로 여자들 농락하며 놀았다는게 난 도저히 용납이 안돼. (뒤에 서있는 툇마니들을 향해 말한다) 야! 문 걸어. (주인공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현금 계산도 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못 준다. 카드 할부 된다 하지만 수수료30%. 둘 중에 뭘로 할래?

주인공들: (울먹이며 이야기한다) 현금도...카드도 없는데요. 아니 카드 있는데 그 정도 한도가 안되요. 제발 봐주세요!

행동대장: (숙인 고개를 천천히 들며 주인공들을 바라본다.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를 물고 이야기한다) 그럼 금이빨 빼고 다 씹어먹어줄께. (영화 아저씨 패러디)